

임진왜란 비밀병기 ‘변이중 화차’ 장성군, 전시관 건립에 힘 보탠다

봉암서원 사업비 협조 요청에
군, 관계부처에 예산 지원 건의

임진왜란 당시 큰 승리를 거둔 행주대첩의 비밀 병기 ‘화차’의 전시관 건립을 위해 장성군이 적극 협조에 나섰다.

화차는 장성 출생인 조선시대 문신 망암 변이중 선생의 손에서 탄생했다. 앞서 제작된 문종 화차의 개량형으로, 40정의 승자총통을 일제히 발사할 수 있는 무기다. 수레 사방에 방호판을 장착하고 그 안에 병사가 들어가 운용하는 방식이다. 임진왜란 발발 후 일본군의 조총에 맞서기 위해 변이중 선생이 사재를 털어 총 300기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의 주요 전투에서 승전보를 올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지난 2011년에는 고(古)무기 전문가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복원되기도 했다. 망암 변이중 선생 서거 4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사)봉암서원이 장성군과 전남도의 지원 아래 추진했다. (사)봉암서원은 망암 변이중 선생의 후손들이 설립한 단체로, 봉암서원은 숙종 23년(1697년) 망암 선생을 기리기 위해 장성을 장안리에 창건된 교육기관이다.

복원을 마친 뒤에는 상무대 육군포병학교 훈련장에서 발사 시연회도 가졌다. 당시, 14개의 승자총통을 2회 발사해 300m 전방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켜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2011년 상무대에서 열린 변이중 화차 복원 발사 시연회 모습. 장성군은 화차전시관 건립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장성군 제공>

이후, 복원된 화차는 상무대 내 육군포병학교 역사관과 봉암서원 전시관에 전시돼 왔지만, 공간이 협소해 일반 대중에게 폭넓게 공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사)봉암서원은 660㎡ 규모의 화차 전시관 건립을 목표로 건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비 확보를 위한 협조를 장성군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건립 취지에 공감한 장성군은 최근 문화재청과 문화체육

관광부, 전남도 등 관계부처에 화차 전시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건의한 상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변이중 선생의 화차는 선조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우수한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면서 “화차전시관이 건립되면, 장성을 빛내는 또 하나의 훌륭한 역사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학생들의 든든한 지원군 ‘나주CT’

대학 진로·진학교재 기탁...고교학점제 무료 북콘서트 준비도

공익 추구형 지역커뮤니티 플랫폼 (주)나주CT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도움이 될 교재를 지원했다. <사진> 나주시는 지난 9일 나주CT에서 300만원 상당의 대학 진로·진학교재 100권을 기탁해줬다고 밝혔다.

이 교재는 진로교육전문, 교육컨텐츠 제작 기업인 (주)캠퍼스맨토와 (주)모아컴퍼니가 후원했다.

해당 책자는 교과 활동 중과 특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에 대한 다양한 영역의 탐구 주제를 통해 잠재성, 장점, 성장 가능성, 문제 해결력 등을 키워준다.

나주CT는 이번 책자 외에도 오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캠퍼스맨토에서 출판한 고교학점제 ‘학과 바이블’ 저자와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기 위해 기획 중이다.

강민진 나주CT대표는 “전면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나주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무료 강좌 개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학과 바이블’ 저자와의 북콘서트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맞춰 열 예정이다.

임철규 (주)캠퍼스맨토 이사는 “이번 기탁식을 계기로 교육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기업이라는 모토를 실천할 수 있게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기탁 받은 책자를 관내 고교에 재학생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강민진 나주시장은 “학생들이 교재를 통해 대학입시, 진로와 관련된 교과 활동과 탐구 영역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준 3개 업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청자 문양에 숨은 고려를 읽다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오늘~11월 28일 특별전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이 ‘문양으로 고려를 읽다, 용아혜초(龍牙惠草) 해석류화(海石榴華)’라는 주제로 12일부터 11월 28일까지 특별전을 연다.

특별전은 고려청자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며, 고려시대에 청자를 비롯한 다양한 불교 미술품에 등장하는 문양의 명칭과 의미에 대해 감상할 수 있다.

용아혜초와 해석류화는 청자에 새겨진 생경한 문양의 이름으로, 도교와 불교의 사상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다. 각각 무병장수와 극락왕생을 상징한다.

전시유물은 고려청자뿐만 아니라 용아혜초와 해석류화가 표현된 불교 미술품도 선보인다.

고려시대 당시 도교를 흡수한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청자에 두 문양이 표현된 이야기로 풀어나간다.

마곡진 고려청자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고려시대 미술품 문양의 상징성을 불교미술까지 아우려서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기에 학계에서도 주목할만하며, 관람객들에게는 고려청자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담양군, 관광지 공중화장실 코로나 방역소독

담양군이 관광지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소독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역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군민과 방문객들이 감염병 걱정 없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지, 터미널,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자체 편성했다.

점검사항은 ▲소독실시 여부 ▲방역지침 안내·홍보(스티커·포스터 부착 등) 여부 ▲정소상태 ▲편의용품 비치(비누, 휴지, 손세정제 등) ▲실내 환기 여부 ▲일일점검표 게시·작성 여부 등이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미이행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보완이 필요한 시설물은 빠른 시일 내 보수하기로 했다.

/담양=노영한 기자 nyc@



장흥군의 ‘흥(興)따라 강따라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이 금계국이 활짝 핀 탐진강변 길을 걷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비대면 경품 이벤트

장흥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 활동이 저하됨에 따라 군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 ‘흥(興)따라 강따라 걷기’를 운영하고 있다.

11월 현재 모바일 걷기앱을 설치한 장흥군 공식 커뮤니티 가입자는 2638명이며, 주민들의 참여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걷기 실천 참여 방법은 장흥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구글플레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장흥군 흥(興)따라 강따라 걷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일상 속 걷기 실천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진행될 챌린지 미션에도 참여할 수 있다.

8월에는 11일부터 20일까지 모바일 걷기앱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 10일간 7만보 걷기

(하루 최대 1만보 인정) 달성자 500명에게 5000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챌린지를 실시한다.

정준순 장흥군수는 “모바일 걷기앱을 활용한 일상 속 걷기 운동 생활화로 군민의 건강 생활 실천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사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사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

